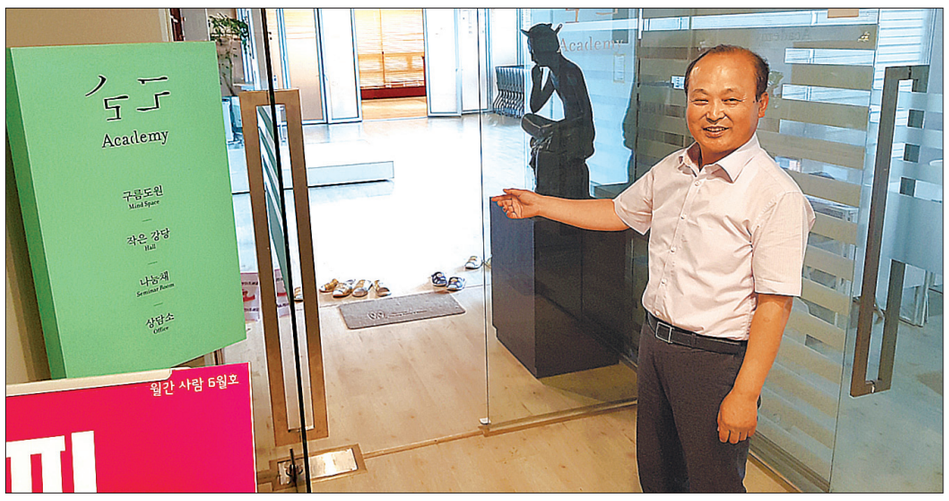
청년불교 활성화 비결 '자발성'

비영리법인 다나, 2019년 계획 발표
대한불교진흥원과 숨도 공간 운영
청년문화기획단으로 활성화 유도
'노터치'로 자연스러운 포교전법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운석 다나 대표가 숨도 7층 대강당을 소개하고 있다. 다나는 숨도를 청년포교산실로 가꿀 예정이다.

청년불교 진흥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다양한 활동이 눈길을 끈다. 비영리법인 다나(대표 송운석)는 6월 10일 신촌 문화공간 숨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운영방향을 밝혔다.

다나는 올해 2월 1일부터 대한불교진흥원으로부터 문화공간 숨도를 위탁받은 운영주체다. 문화공간 숨도의 경우 2011년 1월 3일 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 등 동양문화 관련 활동과 청년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신촌에 개관한 공간이다.

이날 송운석 대표는 "올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내 활동하는 다나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문화기획단을 통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필요로 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나는 서울 신촌에 위치한 숨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지역 불교학생회와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연합법회, 불교문화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등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의존을 낮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일런트 피크닉 행사 등도 개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송 대표는 "노터치(no touch) 노로직(no logic)으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를 읽고 이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모여 불교를 알아가도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불교를 내세우지 않아도 명상과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운석 대표는 1994년 BBS불교방송에서 라디오를 듣다 불교를 접하고 이후 불법홍포에 매진하게 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송 대표는 대학생들이 우연히 불교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발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외부에서 아무리 불교를 믿으라고 해도 결국 신심과 동기부여가 되어야 불교를 알아가게 된다"며 "대학가에서 자발적으로 수업 구성을 하는 다나 프로젝트를 먼저 시행했을 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향후 다나는 숨도를 젊은 세대 감각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특히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7층 대강당을 청년문화 콘텐츠 LAB으로 제공하고, 숨도의 성격에 맞는 단체들에게 대관한다. 또 1층의 책극장을 활용해 월간 사람 프로젝트와 북 콘서트 등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1층에 위치한 소우주 극장에서 청년들의 영상전시를 후원, 전통문화 콘텐츠 실험 및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도 진행한다.

특히 SNS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행사 및 강연 영상을 제공한다.

단국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송 대표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기획, 홍보기획 등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적극적으로 알려가겠다"며 "불교는 젊고, 활동적이며, 시대와 호흡한다는 점을 청년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나는 6월 19일 문화공간 숨도에서 월간 사람 '세상은 됐고, 나를 바꾼다' 특강과 6월 22일부터 청년 전통 크리에이터 워크숍을 개최한다.

동국대, 융복합 인재양성 나선다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6월 4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나선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6월 4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4차 산업 혁명 시대 융합형 인재양성 및 병원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양성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생 명예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 △사회보장정보 분야 강좌 개설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국대 의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보건의료표준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진료정보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동국대와 동국대 의료원은 사회복지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진 정보원의 가용한 데이터를 각종 연구에 활용하고 복지 및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 및 의료분야 표준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련분야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월 4일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윤성이 동국대 총장(사진 가운데)과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사진 왼쪽),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사진 오른쪽)이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민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은 이미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동국대 의료원도 보건의료 표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는 동국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의료 정보와 보안 분야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협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봉은사,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점안

6월 16일 미륵광장서 봉안식 봉행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16일 40여년 만에 숙원 대작불사인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점안식'을 미륵대불 미륵광장에서 봉행했다.

봉은사 미륵대불 불사는 영암 스님이 '민족통일을 발원하는 미륵대불을 봉안하자'는 원력으로 시작했던 대작불사다. 하지만 미륵대불 조성 후 주변 벽면불사는 20년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9월 30일 불사를 완성하고자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를 시작으로 1차 불사 점안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불사 점안식에서는 추가로 미륵원불 1,432위(총3,999위)와 보살입상 9위(총23위)가 대중에 선보였다. 점안식에는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천수경, 화취진언, 목욕진언, 축원 등 의식을 진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미륵대불 불사는 봉은사 신도들의 신심과 저력의 산물"이라며 "그동안 원불 봉안부터 미륵대불 용화정토 장엄까지 참여한 모든 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동참하신 분들 모두가 가정에 행복과 지혜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봉은사 미륵대불과 미륵광장 전경.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봉은사 홈페이지(www.bongeunsa.org) 및 02-3218-4801~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진흥원, 제16회 대원상 후보 공모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 출 · 재가 구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이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6회 대원상(大圓賞)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공모 부문은 출가 · 재가로 구분된다. 출가부문은 3인(곳) 이내로 시상하며,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한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 ·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 · 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재가 부문도 3인(곳) 이내로 시상한다. 불교정신과 사상을 고취 · 확산시키고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단체 · 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000~2000만원, 특별상 500~1000만원, 장려상 300~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 희망자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진흥원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한편 대원상은 현재까지 개인 67명(스님21 · 재가자46), 단체 31곳을 시상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 삼보회, 여름불교대학 개설

7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진행

55년간 대중불교를 선도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이사장 유억근)가 화엄경 소초를 중심으로 불교 정체성 정립에 기여한 백암성총 사상과 화엄 사상 전개를 조명하는 제45회 삼보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한다.

7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총 8주간 서울 성북구 삼보정사서 진행되는 이번 삼보여름불교대학은 각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강의할 예정이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현대과학으로 풀이한 법성계' △석길암 동국대 교수의 '화엄삼매와 가피 속에서 쫓아가는 부처님 발자국'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후기 화엄경 소초의 전래와 강원의 발전'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의 '백암성총의 사상과 불교사적 위치' △최종석 금강대 명예교수의 '불교의 세계관과 행복' △중앙승가대 4대 총장 종범 스님의 '화엄경 특강' △김영진 동국대 교수의 '화엄경과 비로자나불' △정병조 금강대 4대 총장의 회향법문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다. 한편, 대한불교삼보회는 불교계 최초의 재가불자 신행단체로 서울 삼보정사에서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2년 포교사 과정과 별도로 법사과정을 개설했으며, 2년 이상 포교경력을 가진 포교사들을 삼보법사로 양성, 배출하고 있다. 활동분야는 군포교와 병원포교 분야에 최근 호스피스 활동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02)913-2859 노덕현 기자

제 4 회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2019

천태예술 공모대전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4회 천태예술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서예·문인화, 민화
총 5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 2019. 08.28 (수) ~ 29 (목)
전시 2019. 10.23 (수) ~ 28 (월)

분야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격	유의사항
불 화	200호 미만 (300cm 미만)	1점당 50,000원	1인 2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가능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조 각	높이 250cm 미만	1점당 50,000원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공 예	높이 200cm 이하 가로x세로 2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서 예 문인화	전지 이하 가로 70x세로 130cm	1점당 50,000원			배접하지 않고 접수 (입상작 표구비 7만원 별도)
민 화	120호 미만	1점당 50,000원			배접,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할인 30,000원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2명	상금 각 500만원 상장상패	
부문별우수상	5명(부문별 1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상패	
가작	5명(부문별 1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상패	
장려상	10명(부문별 2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상패	
특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부문별 약간명	상장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0월 23~28일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유의사항
- 대상작은 종단 귀속.
- 필요 시 입상작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특선 이하 작품은 전시장 사정상 전시하지 못할 수 있음.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 원서 등록 : 방문접수, 우편접수 (우편발송의 경우 29일 도착 분까지)
- 접수 기간 : 8월 28일(수)~29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8월 29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대리인의 경우 출품자 확인)이 접수증 확인 후 회수.
※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전시 종료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문의 -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 02-547-4746

심사 발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 및 개별 문자 통보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 주관 제4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